

현대차, 투자자와 GBC 공동개발기로 수정

삼성동을 한국판 허드슨 야드로... 브랜드가치 상승 기대

현대차, SPC 설립 방안 유력
부동산 전문 업체도 참여 전망
569m 높이 2023년 완공 목표



오는 2023년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에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자체개발이 아닌 외부투자자와 공동개발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3조7000억원에 이르는 투자비 부담을 줄여 최근 발표한 대규모 미래투자 계획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유수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GBC 건립 공동개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개발 방식은 현대차그룹과 외부투

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GBC의 잠재력과 기대수익에 많은 관

심을 표명하고 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투자 효율성 측면과 GBC의 뛰어난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미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

히는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는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은 허드슨강 유역을 따라 개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글로벌 부동산 전문 투자자와 금융사들이 대거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GBC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적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들도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이 'GBC 공동개발' 카드를 택한 것은 GBC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해 미래 투자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투자 효율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GBC 건립 비용 투입에 대한 주주와 시장의 우려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주주와 시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CEO 인베스터 데

이'를 열고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등에 45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월 정부 심의를 최종 통과한 GBC 사업은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착공될 예정으로 2023년 완공이 목표다. GBC는 국내서 가장 높은 569m 높이인 지상 105층 규모의 업무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GBC 부지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이 19.7%에 달해 GBC 준공 시점에는 부지 매입원가를 웃돌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허드슨 야드 사업의 개발방식은 무형적 가치도 더해져 GBC가 완성차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자동차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는 SXSW에 혁신 컨셉트 제품 5종을 공개하는 등 단독 전시장을 열었다. /LG전자

LG전자, 상상속 新 컨셉트 제품 5종 공개

SXSW서 혁신적 아이디어 대거 선보

LG전자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대거 선보였다.

LG전자는 8일(현지시간) 개막한 SXSW에서 단독 전시장인 'LG 인스퍼레이션 갤러리'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전시장에는 새로운 컨셉트 제품 5종이 공개됐다. ▲인공지능 로봇 ▲캡슐형 아이스크림 제조기 ▲스마트 라이팅 솔루션

원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벽시계 ▲쥬얼리 타입 무선이어셋 등이다.

또 LG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테크 블로거 100여명을 초청해 토크 세션도 개최했다.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대해 소개하고, LG 홈브루 시연회를 통해 LG 홈브루가 만든 맥주도 제공했다.

LG전자는 이번 SXSW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빌트인 오븐, 美 최고제품 선정

LG전자 빌트인 오븐이 미국에서 최고의 오븐으로 선정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최근 LG전자 빌트인 오븐(LWS3063)을 '2019년 최고의 월 오븐'으로 선정했다.

점수는 90점이다. 오븐 유리면이 커서 조리 중인 음식을 확인하기 편하고, 조리와 자동 세척 기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신뢰도와 만족도도 높았다. 가격도 저렴했다. LG전자가 1640달러, 2위와 3위를 차지한 제너럴일렉트릭(GE) 제품은 각각 3600달러, 2340달러였다.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빌트인 오븐. /LG전자

한편 삼성전자는 '더블 월 오븐' 부문에서 GE와 키친에이드에 이은 3위에 올랐다.

/김재용 기자

삼성, 전세계에 QLED TV 알리기 나선다

글로벌 주요지역 '테크 세미나' 개최
기술·서비스 소개부터 의견 청취까지

삼성전자가 2019년형 QLED TV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4월말까지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글로벌 테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테크 세미나는 삼성전자가 8년간 이어온 행사다. 영상과 음향 등 전문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삼성 TV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7일부터 8일까지 행사를 마무리했다. 퀘텀 프로세서가 구현하는 초고화질 화면과 고해상도 게임을 빠르게 전환해주는 게임모드, 그리고 뉴빅스비와 매직 스크린 등 스마트



삼성전자 테크 세미나 장면. /삼성전자

기능까지 소개했다.

삼성전자 QLED TV는 지난 2월 미국에 출시된 바 있다.

이어서 3월에는 유럽 42개국과 한국시장에 내놓고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강

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44.3%, 75형 이상 초대형 TV 54.4%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에이스침대-삼성전자

봄 맞이 '이사·혼수 프로모션'

에이스침대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이사·혼수를 위한 프로모션을 연다. 에이스침대는 이달 20일까지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이사·혼수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롯데하이마트 쇼핑몰에서 온라인 단독으로 실시한다.

행사는 ▲나만의 공간! 싱글하우스! ▲신혼집 꾸미기! 센스있는 혼수준비! ▲실속있는 선택! 이사시즌 필수템! 등 3가지 패키지 테마로 진행된다.

'나만의 공간! 싱글하우스!'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라이프를 즐기는 싱글들을 위한 테마다. 싱글들이 활용하기 좋은 1인용 가구와 가전제품을 선보이며 슈퍼싱글 사이드로 구성된 다양한 에이스침대와 삼성전자 노트북, 모니터, 공기청정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신혼집 꾸미기! 센스있는 혼수준비!'

테마는 최근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과 함께 예식장 비용 등 타인을 의식해 예식 비용은 줄이는 대신 부부의 결혼 생활에 투자하는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에이스침대의 LUNATO II·III, OPIMO, VENATO-R 등의 침대 모델과 삼성전자의 대형TV, 냉장고, 건조기 등이 포함돼 신혼 부부들의 힐링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속있는 선택! 이사시즌 필수템!' 테마는 최근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에도 안심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가구와 가전을 준비했다. 새 집 단장에 어울리는 에이스침대의 MONOS, STARLET III 등의 침대 모델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산 최고급 리클라이너 스트레스리스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를 만나볼 수 있다.



/연합뉴스

LGU+ 스마트홈서비스 팝업스토어 운영

LG유플러스는 오는 17일까지 판교 현대백화점 10층 토포스홀에 IPTV와 U+tv 프리, AIoT 등 스마트홈서비스를 망라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U+라운지'를 운영한다.

200평 규모 팝업스토어에서는 LG유플러스 직원이 아이들나라, 넷플릭스, 브라보라이프, U+프로야구, U+골프 등 IPTV 주요 서비스를 시연하고 고객 체험을 돕는다.

/연합뉴스